

재외공관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고생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저의 각별한 안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임 이후 모두 스물여섯 차례의 개별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다자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외교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를 피부로 느끼곤 했습니다. 수출 2천억 달러 시대를 열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닥을 잡은 것도 그러한 노력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외교관은 바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또한 129개의 우리 재외공관은 무한경쟁의 최일선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업무는 가중되고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외교활동은 물론이고 통상마찰 해소, 투자유치, 문화교류 확대 등등 힘을 기울여야 할 분

야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낮없이 뛰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동포들은 물론 상사원, 유학생, 여행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환경까지 열악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어렵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부인까지 업무지원에 나서야 하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내 신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폴란드 외교관들의 활동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관들이 결코 그들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열심히 일한 사례들은 적극 홍보해서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적극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이미 반쯤은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늘 혁신하는 조직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부단한 개혁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효율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인 것은 반으로 줄여 나갑시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그 보람 또한 함께 나누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에는 일이 바쁘더라도 꼭 건강부터 챙기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